

하지원, BTS 월드투어 관람…"모든 게 완벽"

등록 2026.04.12 16:45:28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우 하지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장을 찾았다.

하지원은 11일 소셜미디어에 "BTS 콘서트를 마치고 뷁, 정국과. 정말 모든 게 멋지고 아름다웠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하지원이 뷁, 정국과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원은 공연장을 배경으로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진도 올리며 "오늘 BTS 콘서트는 정말 순간순간이 최고였고 모든 게 완벽했다. 이렇게 멋질 수 있다니"라는 글도 남겼다.

방탄소년단은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아리랑'을 개최한다.

방탄소년단은 고양을 시작으로 도쿄,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의 34개 도시에서 85회에 걸쳐 공연할 예정이다.

하지원은 ENA 드라마 '클라이맥스'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이 작품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 권력의 카르텔에 뛰어든 검사 방태섭과 그를 둘러싼 이들의 치열한 생존극을 담은 드라마다.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하지원은 수십억 대 탈세 논란으로 추락한 톱배우 추상아 역을 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